

고 박형규 초대 이사장 장례 예배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



고 박형규 목사 약력

- 1923 경남 창원군 진북면 영학리에서 출생
- 1930 어머니의 영향으로 기독교학교 다님
- 1944 조정하 여사와 결혼, 슬하에 2남 2녀
- 1944 민족사상을 고취한다고 김해경찰서에 연행
- 1950 미 극동군 일본사령부 심리작전국 방송 군속
- 1960 서울교회에서 목사 안수 받음
- 1962 미국 유니온 신학대학에서 신학 석사 받음
- 1966 한국기독교학생회(KSCM-KSCF의전신) 총무
- 1970 수도권 특수지역선교위원회 위원장
- 1972 서울 제일교회 담임목사 취임, 20년 동안 시무
- 1973 남산 부활절연합예배 사건으로 구속
- 1974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
- 1975 선교자금 횡령과 배임 조작 사건으로 구속
- 1978 기장 청년회 전주교육대회 시위 사건으로 구속,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 1983 국군보안사령부 공작으로 폭력배가 서울 제일교회 예배를 방해하기 시작
- 1984 교인들과 함께 폭력을 피해 중부경찰서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시작
- 1987 '박종철 고문살인 및 은폐조작 규탄 및 호헌철폐 범국민대회'를 주관하고 구속
- 1992 서울 제일교회에서 은퇴
- 199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고문
- 2001~200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
- 2007~2011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1923-2016
“당신은
대전환기를 산
한국의 현대사”

지난 8월 22일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박형규 목사의 장례예배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장례 예배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 손학규 전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김영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철 민청학련운동 계승사업회 회장, 강성영 한신대학교 총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영결식은 총회 부총회장인 권오륜 목사의 집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사업회 임직원들도 장례예배에 참석해 박형규 초대 이사장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배웅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김상근 목사는 “박 목사님은 이 나라를 반민주·반민중·반민족의 독재시대에서 민주·민중·민족의 시대로 대전환을 이뤄냈다. 목사님, 당신은 한국 교회이자 한국 현대사”라고 회상했고 “우리 모두 고인을 본받아 파수꾼의 함성으로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자택에서 94세를 일기로 별세한 박형규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남북평화재단 이사장 등을 지냈습니다. 빈민 선교와 인권·노동·민주화 운동에 평생을 바치며 ‘길 위의 목회자’로 불렸습니다. 영결식 후 부인(조정하)이 잠든 경기 파주시 기독교상조회 묘지에 안장됐습니다.



민주주의 심화로 지속가능한 사회 만들자

유엔, '민주주의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화두로 제시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2016 세계 민주주의의 날'(International Day of Democracy)을 맞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세계 민주주의의 날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성찰, 보완하기 위해 유엔(UN)이 2007년 제정한 기념일로 매년 9월 15일을 기념합니다. 유엔(UN)이 선정한 올해의 의제는 '민주주의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Democracy an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보내온 영상 메시지를 통해 "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서 끊임없이 수정되었다. 그런 점에서 87년 민주화의 산물로 태어난 현행 헌법은 이제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아 거듭나야 할 때다. 20대 국회가 헌정의 새로운 기틀을 다지고 보다 성숙된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의제를 설정하고 정부와 기업, 의회와 시민 사회의 역할을 논의하며 우리의 미래 대안을 만드는 과정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과 투명한 리더십이 뒷받침될 때만 가능하다. 민주주의의 확장과 심화는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 불평등을 해소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대안이다. 민주주의의 심화를 통해 평등, 평화, 복지사회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습니다.



* 유엔 '세계 민주주의의 날' 웹페이지 화면

2016 동아시아민주평화 인권네트워크 국내단체 워크숍 열려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 2016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국내단체 워크숍 단체사진

2016년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국내단체 워크숍이 8월 25~26일, 1박 2일간 부산민주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광주 5·18기념재단, 제주 4·3평화재단,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의 임직원 7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첫째 날 조선업 침체로 물동량이 줄어든 부산항을 돌아보고 부산민주공원을 참배한데 이어 '초등 사회과 교과서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분석'(강사: 신형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장)을 주제로 강연 및 토론을 통해 역사 왜곡 사례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부산 문탠로드,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트레킹을 통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관련 기관들은 동아시아민주평화인권네트워크 MOU기관의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과거사 정신 계승을 위한 워크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한열 기념관, '보고 싶은 얼굴2' 展

보고 싶은 얼굴

2016 이한열기념관 특별기획전

이한열기념관 기획전시실

FACES
홍성엽
강민호
권희정
김운
문수스님
김영미

ARTISTS
유병서
전진경
최연택
이서
박경효
이난

UNFORGETTABLE
FACES

2016
10.5
— 11.30

이한열기념관이 10월 5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고 싶은 얼굴 2' 기획전시를 엽니다. 민주화운동 및 인권운동을 하다 세상을 떠난 인물들을 형상화한 전시로, 올해로 두 번째 개최되는 전시입니다. 6인의 예술가는 각자 고유한 감각으로 ▲민청학련·YWCA 위장결혼식 사건의 홍성엽씨(유병서 작가),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강민호씨(전진경 작가), ▲학내 민주화를 외치다 단식 후 유증으로 절명한 권희정씨(최연택 작가), ▲민청학련 사건의 유일한 여성 관련자이자 여성 농민운동가인 김운씨(이서 작가), ▲4대강 개발을 반대하며 소신공양한 문수스님(박경효 작가), ▲군포시민운동의 터를 닦은 김영미씨(이난 작가)까지 6인을 작품 속에 되살려냈습니다.

새로 나온 책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 보고서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시민교육의 원칙과 현재적 과제를 제시하는 연구 보고서가 발간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사)시민이 2013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공통문제와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 한국 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진행했던 '시민교육 포럼'의 워킹그룹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보고서는 모든 공동체에서는 처한 조건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사회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시민교육의 상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은 미국의 아키비스트이자, 역사가이며 기록학 교육자인 랜달C. 지머슨이 쓴 『기록의 힘』(Archives Power: Memory, Accountability, and Social Justice)을 2016년 3월 31일(초판) 번역 출간한 바 있습니다. 이 책은 기록관련 종사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을 위한 필독도서로 소개되면서 1쇄가 발간되고 빠르게 재고가 소진되었습니다. 이에 2쇄 발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SAA와 협의하여, 8월 24일부터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아카이브즈의 가치와 아키비스트의 사회정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민주리**